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13)

孤山智圓法師 勉學(고산지원법사 면학) ③

夫聖賢必務於學  
부성자현 필무어학  
聖賢以下 安有不學而成人哉  
성현이하 안유불학이성인재  
學 猶飲食衣服也 人有聖賢乎 猶食乎 猶衣乎  
학 유음식의복야 인유성현호증서호  
雖三者 異而前索食 渴索飲  
수삼자 이이기색식 갈색음  
索索衣則不寒矣 學也 豈得異乎  
한색의죽불이의 학야 기득이호

무릇 성인과 현자도 반드시 배움에 힘쓰거든 성현도 못하는 이가 어찌 배우지 않고 사람이 되리오  
배움은 음식·의복과 같다. 사람에는 성인·현자·보통사람이 있다.  
비록 이 셋이 다르지만 배고프면 먹을 것 찾고 목마르면 마실 것 찾고 추우면 옷을 찾는 즉(서로) 다르지 않으니 배움인들 어찌 다르리오.

惟禽獸土木 不必學也  
유금수토목 불필학야  
嗚呼 愚夫 嗜飲食而不學 冒利而不休  
호호 우부 기음식이불태 모호리불휴  
及就於學 朝學而夕忘者 有矣夫  
급취우학 조학이석태자 유의부  
有春學而冬忘者 有矣夫

“매일 한가지씩 배우고 착한일 쌓으면 범부도 군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유춘학이동태자 유의부  
有效(有效) 嗜飲食而不知學  
구여기음식모호리불지태자  
何患於不爲(何患) 不爲君子乎  
하환어불위박문호 불위군자호

오직 금수·토목은 배울 필요가 없다. 슬프다. 어리석은 사람은 음식을 즐기는데 게으르지 않고 재물과 이익을 탐내어 쉬지 않고 배움에 이르러서는 아침에 배우다가 저녁이면 게을리하는 이가 있으며 또 봄에 배우다가 겨울에 게을리 하는 이가 있다.

진실로 음식을 즐기고 재화 탐하기를 게을리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찌 널리 들지 못하고 군자되지 못할을 근심하리오.

曰世有至愚者 不學而學之異  
알세유지우자 불변속택지이  
不知(不知) 樂學也 豈可教也  
부지한서지변 기령학야 기가교야  
曰至愚 由不教也 由不學也  
알지우 유불교야 유불학야  
有師教之不從 彼心之不學也  
구사교지불권 피심지불태자  
聖域(聖域) 可(可) 而(而) 生(生) 乎 何(何) 憂(憂) 彼(彼) 之(之) 不(不) 學(學) 也  
성역가제이승호 하우속택지불변야

이르되, 지극히 어리석은 자 있으니

공과 보리의 다름을 가리지 못하고  
좁고 더운 변화도 알지 못하며 어찌 배울 것이며 어찌 가르칠수 있으리오?  
이르되, 지극히 어리석은 자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은 까닭이니 진실로 스승의 가르침에 관태를 느끼지 않고 제 마음이 게으르지 않는 이면 성현의 자리에 밝아 오를 수 있을 것인데 어찌 공·보리를 못가린다 걱정하리오  
巨愚者 渴而知飲 飢而知食 寒而知衣 暑而知涼 而不知學 則與草木殊矣  
기지사삼자죽 여초목수의  
愚乎不可學也 不可教也  
오호불가학야 불가교야  
人之至愚 豈不能日記一言耶  
인지자우 가불능일기일야  
積日而進則記三十言矣  
적일지일즉기삼십언의  
積月而進則記三百六十言矣  
적월지년즉삼백육십언의  
積之數年而不怠者 亦幾於博學乎  
적지수년이불태자 역기어박문호

또 어리석은 이도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알고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옷 입을 줄 아나니 이미 이 세가지를 아는 즉 초목과는 다른지라

어찌 배울 수 없고 가르칠수 없으랴  
사람이 지극히 어리석어도 어찌 하루에 말 한마디를 기억할 수 없겠는가  
날이 쌓여 달이 차면 삼십마디를 기억 할 것이요 달이 쌓여 한 해가 되면 삼백육십마디를 기억할 것이며 여러 해가 거듭되도록 게으르지 않는 이면 또한 박학다식 흠 되지 않겠는가.

又曰取一小善而學行之  
우일취일소선이화행지  
積日而進則身有三十善矣  
적일지일즉신삼십선의  
積月而進則身有三百六十善矣  
적월지년즉신삼백육십선의  
積之數年而不怠者 亦幾於君子乎  
적지수년이불태자 불역기어군자호  
爲愚小人而不變者 由不學耳  
위우소인이불변자 유불학이

또한 하루 한가지 작은 선을 취해 배우고 행하여 날이 쌓여 달이 차면 곧 몸에 삼십가지 선이 있게 되고 달이 쌓여 한해가 되면 곧 삼백육십가지 선이 있게되고 여러 해 게으르지 않으면 또한 군자에 가까와 지지 않겠는가  
어리석은 소인으로서 변하지 않는 자는 배우지 않는 때문일 뿐이다.

龍眼

“나를 비우고 삼독심 여의면

지 상 범 석

‘부처님은 도술천을 여의지 않고 정반 왕게 오셨드라, 마아부인 태(胎)중에서 나오기 전에 일체중생을 제도해 마쳤드라.’

여기에 성불(成佛)하는 도리가 있고, 생사를 영달한 도리가 있어요.

석자모니 부처님은 고해(苦海) 중생을 건지시기 위해 사바세계에 오심이 없이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원래 ‘오셨다’, ‘가셨다’, ‘태어나셨다’, ‘돌아가셨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한 자리에서 오심이 없이 오셨다고 해서 여래(如來)라고 합니다. 허공(虛空)이 왔다 갔다, 태어났다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 보지 못하듯이 부처님은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오셨기에 오고 갔이 없습니다.

중생은 분별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 모

부처님 법신은

우주에 가득 차

시공 가리지 않고

일체 중생 앞에

나타납니다

양이 떠난 상태와 경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법신은 우주에 가득 차 있어 널리 일체중생 앞에 나타납니다. 두 두물물이 부처님의 상호(相好)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부들은 우주에 충만한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몸으로 나신 부처님만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빌리셨을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뜻을 제대로 안 후에 우리는 부처님의 대자비행을 본받아 부처님의 분신(分身)으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처님을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는 부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중생의 눈으로 보려하지 말고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성도(成道) 후 ‘일체중생이 부처님과 같은 덕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은 말씀은 일체중생을 똑같이 평등하게 취급하신 혁신적인 일대 선언입니다. 여기에는 후세의 의심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에 ‘貪(貪) 지혜의 햇불을 밝히면 곧 본래면목(本來面目) 그 자리요, 반야선이 다



고 송 스 님  
회계사 조실

- 약 력
- 1906. 10. 10 생
  - 1920년 팔공산 피계사 출가
  - 금강산 등서 수행정진
  - 암월사서 30년 결사
  - 1923년 용성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다른 피안·열반·저 언덕 자체인 것입니다.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하나’이므로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가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수한 망상과 집착, 탐진치 삼독 때문에 우리는 부처가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我)라는 생각과 욕심을 남김 없이 버린다면 누구나 곧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그러한 서원을 발할 때 정각(正覺)이 멀지 않

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오로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 무수한 고난과 역경의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생이 다급생멸(多劫生滅)하는 동안 쌓아왔던 업보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부처님 법에 의지하여 뛰어넘지 않고는 무명(無明)을 광명(光明)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6년간의 설산(雪山) 고행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는 고통과 즐거움이 없는 비교비

락(非苦非樂)의 수행을 보리수 아래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고행과 쾌락에 치우친 수행만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49년간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셨습니다. 8만4천의 법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자(離苦得樂)’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즐거움은 인간의 오욕락(五欲樂)처럼 즐거움을 누릴 수록 점점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이 아닌 영원불변한 행복입니다.

신라문화원은 불교대중화와 우리선조들이 물려주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茶 만드는 계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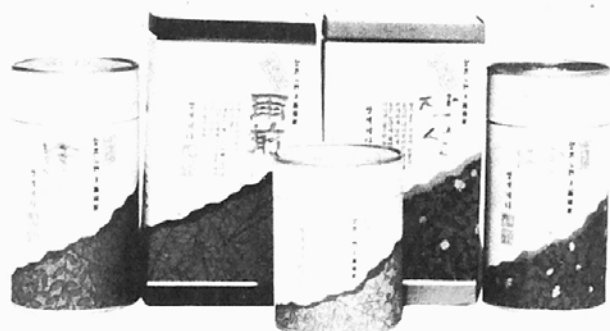
茶人들에게 靛雨(四月二十日)에서立夏까지는 성스러운 계절입니다. 그것은 풀의 聖賢인 茶를 만드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선물

쌍계제다의 茶를 선물하시는 것은  
'지리산의 향기를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山野에 自生하는 草芽를 채취하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라문화원

쌍계제다의 茶를 신라문화원에서  
구입하시는 것은 '불교대중화와 문화운동에  
앞장서시는 일'이 됩니다.



풀빛마음  
풀빛손길로 만들어 내는  
野生綠茶!

◎우전 ◎작설 ◎죽로 ◎옥천



한잔의 차는 한 조각 마음에서 나왔으며 / 한조각 마음속에 한잔의 차가 있도다 / 마땅히 한잔의 차맛을 보니 / 한맛에 무량한 즐거움이 니도다 - 함허 득통선사

구입처 신라문화원 (0561) 771-1950, 746-1950, FAX 773-1950  
780-030 경북 경주시 노서동 120-9번지 (서라벌 문화회관 맞은편)

쌍계제다

본사: 경남 하동 화계 용강리 318  
(0595) 83-2449, 83-2440  
서울사무소: (02) 720-5392  
부산사무소: (051) 242-7719